

2024년 1월 14일. January 14,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With what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and bow myself before God on high?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burnt offerings,
with calves a year old?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a] thousands of rams,
with ten thousands of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8. 사람이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b]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미가 Micah 6:6-8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써 용서하사,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새 생명을 주사, 새해를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복음전파 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사람들 눈에 크고 놀라운 일 대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상이 아니라 천국의 상을 받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사 세우신 금문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On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누가복음 Luke 16:1-13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He also said to the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 had a manager, and charges were brought to him that this man was wasting his possessions.

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And he called him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that I hear about you? Turn in the account of your management, for you can no longer be manager.'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And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all I do, since my master is taking the management away from me? I am not strong enough to dig, and I am ashamed to beg.'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I have decided what to do, so that when I am removed from management, people may receive me into their houses.'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So, summoning his master's debtors one by one, he said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6. 말하기를,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oil.'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sit down quickly and write fifty.'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Then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eighty.'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The master commended the dishonest manager for his shrewdness. For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And I tell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so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On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is also faithful in much, and one who is dishonest in a very little is also dishonest in much.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If then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o you the true riches?

12.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하나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앞과 뒤에 연결된 “하나님 나라 주제” 안에서 읽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런 “연결고리 읽기(reading by link)”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말씀은 하나의 흐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태초의 천지창조(the Creation in the beginning)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the New Creation in the time of God)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연결고리로 엮이는 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라는 큰 주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한 청지기(unfaithful manager)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무태만(neglect of duty)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실직 이후(after losing job)를 대비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들에게(debtors) 빚을 탕감(debt easement)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도움을 얻으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청지기를 칭찬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he was faithful in a very little)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음”(a very little)이란 어떤 단위보다도 일의 성취도나 진실함의 정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내놓아 떼뺏히지도 못한 일에도 이처럼 신중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in earnest)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천국비유(a parable on Kingdom of God)입니다.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He also said to the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 had a manager, and charges were brought to him that this man was wasting his possessions.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a rich man) 있습니다. 그에게 청지기(manager)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듣기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he was wasting owner’s money)고 했습니다.

어쩌면 주인의 돈을 맡은 그가, 그 돈을 마땅히 명령받은 대로 쓰지 않고 개인의 용도로 썼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재에 밝지를 못해서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농사나 장사를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거나, 시장경제에서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는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앞 장, 곧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the prodigal son)를 염두에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돈을 탕진한.

어쨌거나 주인이 결국 알게 된 내막은, 이 청지기의 불의함, 불성실함, 그런 종류였습니다.

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And he called him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that I hear about you? Turn in the account of your management, for you can no longer be manager.’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소문을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 통보(notice of dismissal)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했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마무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And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all I do, since my master is taking the management away from me? I am not strong enough to dig, and I am ashamed to beg.

청지기가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무얼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실직 이후 미래 걱정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육체노동은 가능하지 않다.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암울하기까지 했습니다.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I have decided what to do, so that when I am removed from management, people may receive me into their houses.’

고민 끝에, 마침내 청지기는 할 일을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후 생계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밥도 주고 용돈도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So, summoning his master's debtors one by one, he said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청지기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주어진 시간(time given to finish)을 이용했습니다. 자기가 장부를 관리하므로, 주인에게 빚진 자(debtors to the master)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불렀습니다. 얼마나 빚을 졌는지 확인합니다.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6. 말하기를,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oil.'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sit down quickly and write fifty.'

만일 기름 백 말이라면, 빨리 "오십"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직무로써 50%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백 말(hundred measures. batos). 한 말(bato)은 9 갤런입니다. 이 사람은 기름 900 갤런의 빚을 진 것입니다.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Then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eighty.'

다른 이가 왔습니다. 그는 밀 백석을 빚졌습니다. 그에게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백 석(kors). 여기서 "석"(kor)은 오늘 우리가 정확한 계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많은" 어떤 계량입니다.

분명히 6-7절에 나온 이 두 가지 경우만 한정해도, 이들 두 사람은 결코 자기가 노력해서 빚을 갚아낼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들에게 "빚 탕감"(debt easement)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은혜는 마땅히 그 주인이(the master) 베풀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바로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the rich and Lazarus) 비유의 "부자"(the rich)와 흡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청지기가 그 선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The master commended the dishonest manager for his shrewdness. For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

주인은(the master) 이 모든 행위를 알았습니다. 청지기가 한 일은 불법입니다. 불의한 자가 불법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깨달았고, 그 청지기가 한 선한 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심판의 때"에, 심판의 주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을 암시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와 연결해서 읽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안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나사로를 세상으로 내보내서 형제들이 깨닫게 하고 싶을 정도로 늦게.

이제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than the sons of light.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빛대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대상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이 청지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쫓겨난 후를 대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빛의 아들들은 마땅히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빛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을 자처하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And I tell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so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이제 영적인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중심은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입니다. 그 친구는 그가 실직한 이후에 그를 도와 먹고 살게 해 줄 사람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이것은 "심지어 불의의 재물로라도!" 라는 뜻입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절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쯤해서 우리는 "땅에 묻힌 보화"(treasures hidden under the earth) 비유와, "좋은 진주장수"(the good pearl dealer) 비유를 떠올립니다. 이 두 경우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보화의 땅을 샀고, 그 좋은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entering into Kingdom of God)를 그렇게 사모하고 천국입성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so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보십시오. 청지기가 관리하던 그 재물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가 직장을 잃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재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쫓겨난 이후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 영생을 위한 준비,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지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청지기가 "은퇴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일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와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탕자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그를 실직 상태에 있는 그를 영접할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를 친구로 사귀었습니까? 불의 재물로써? 어떻게요?

탕자는 재물을 탕진함으로써,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그리고 그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탕자는 비로소 자기를 “조건 없이 영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 자체보다는, 그 변화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영접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은퇴자금(retirement fund)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실직 이후 그를 영접하고, 평안에 이르는 길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On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is also faithful in much, and one who is dishonest in a very little is also dishonest in much.”

이 말씀은 유명한 경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처음 두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마태복음 Matthew 25:21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청지기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은 육신의 은퇴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the master)과 비교가 됩니다. 주인은 대책도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해고하여 거리로 내쫓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 것입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천국입성에 실패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은 “천국입성”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은퇴준비를 잘 한 것이 천국입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불의한 종이 불법을 동원하여 은퇴준비 한 것이 천국 갈 만한 일입니까?

모든 비유는 현실에 적용하는 그 “접촉점”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은퇴준비”를 영적으로 풀어, “천국입성”으로 일치시킨 예수님의 지혜가 그 초점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살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 불의한 종처럼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천국입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If then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o you

the true riches?

이 불의한 증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했습니다. 은퇴 때 필요한 재물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그 자체로 모아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마련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친구!

만일 이런 정도의 지해도 없다면, 누가 그에게 천국지혜를 주겠습니까?

천국지혜는 천국입성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여기 이 비유에서 배워야 합니다.

12.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이 불의한 증은 남의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가 지금 빛진 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사역은 충성입니다.

만일 해고명령을 받고 그가 손 놓고 있었다면, 누가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입성"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입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6:24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마태복음 Matthew 6:24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을 때는 이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있어서 두 주인은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비유 자체만 보아서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증은 얼핏 볼 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종은 자금(fund), 곧 "돈"(money)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친구"(friends)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직 이후에 그를 "영접할 친구"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는 그 참된 친구가?

이 참된 친구는 곧,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세상일은 결국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크다고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일로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을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실체입니다. 이것이 자랄 때 "질적 변화"(qualitative change)를 겪지는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오늘 "불의한 종" 비유를 수평비교(horizontal comparison)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익한 종이 보인 일에서, 엄청나게 큰 질적 변화(qualitative change)를 봅니다.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질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며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눈 먼 자를 밝히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찮은 데서 태어나 별것 아닌 일에 시간을 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헌신은 천국 길을 열어내심이었습니다.

빛을 탐감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 한 일은 불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합법이며, 의로움이며,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내일을 예비해 주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는 "친구"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줍니다. 친구 중의 친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족한 몸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하여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무익한 이 종은, 결과적으로 볼 때, 빛 진 자들을 도왔습니다. 빛에 시달려 신음하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빛진 자들의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복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불의한 종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려는 메시지는,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친구 되신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의 "역설"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의로써 정의를 설명하시고, 불의한 자의 악한 지혜를 통해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게 된 "지혜"는, 예수님께서 지니신 지혜를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천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John 14: 6

이제 불의한 청지기 대신 의로운 청지기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이야기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b]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미가 Micah 6:8

정의, 인자, 겸손, 주동행,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빛진 자를 탕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 중에 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그 부자는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저희들을 용납하사, 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만 아니라 온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